



▲ 클라이언트를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하는 모습.

이제는 저희가 직접 찾아 갑니다

- 진도군청 이동복지관 -

“이제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많은 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게요.”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곳이다.

그러나 농어촌이나 취약한 오지 지역에서는 지역 중심에 위치한 복지관을 방문하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가 바로 ‘이동복지관’이다.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몇몇 복지관에서 운영해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데, 진도군청에서 직접 이러한 이동복지관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진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사회복지관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고자 진료팀과 복지서비스팀, 이동목욕봉사팀이 주축을 이루어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 운영하고 있다.

노인공경군 선포(2004년10월6일) 후 건강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내과진료 및 한방진료, 치과진료 등을 추진하고 또한 교양강좌, 건강 체조, 우리가락 배우기 등 어르신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병행운영하며, 거동불능 재가노인과 장애인 등 요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물리치료 및 햇빛산책, 이동목



▲ 이동복지관은 의료지원 이외에도 이·미용 서비스와 건강강좌, 기타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농어촌 취약 지역을 찾아가는다.




복지서비스 혜택이 취약한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진료, 이동목욕, 건강강좌 등 서비스 제공

욕차량을 이용한 목욕서비스, 자원봉사자 활용 가사서비스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로당은 그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하게 위해 경로당에서 직접 물리치료, 한방순회진료를 비롯 오락프로그램과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봉사회, 여성자원봉사회 등 진도군 봉사단체를 활용하여 민·관이 함께 소외되어 있는 이웃을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동복지관' 운영은 전 군민이 한 가족이 되어 함께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사랑의 결연식'(2004년9월10일)을 통해 더욱 확고한 군민운동으로 확산 추진되고 있다고 담당자는 밝혔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역과 보호를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보건소와 자원봉사단체를 연계해 보건의료사업과 가사지원 사업 등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라며,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2005년3월18일)을 통해 공경과 더불어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외 진료팀(보건소)과 이동목욕봉사팀(주민복지과)은 이동사회복지관 운영일 외 각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자료제공 : 진도군청

이동목욕봉사는 움직이지 못하는 농촌지역 ▶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이동목욕 봉사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